

## 전북자치도 출범 2년 '전북형 특례' 성과

### 특례 333개 중 75개 과제 사업화 농생명산업지구 6곳 지정 완료 무주·부안·변산 문화관광 약진 시군 맞춤형 특례 산업 기반 조성

전북특별자치도는 출범 2년 도민 체감형 변화의 기반을 다지며 전북특별법을 기반으로 한 특례 실행을 통해 지역별 특화사업 육성, 규제 완화, 민생·산업현장 개선 등을 추진했다.

지난 2년간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법의 특례 333개 중 75개 과제를 사업화하고 지구·단지·특구 지정, 시군별 대표 특례 추진 등 61개 과제는 이미 시행되어 다양한 특례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농생명 분야에서는 농생명산업지구 6개소(남원·진안·고창·의산·장수·순창)가 지정 완료됐다.

권한이양을 통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농지전용 허가 등 신속한 지구 지정 및 조성이 가능해져 행정비용이 절감됐으며 농업생산에만 머물렀던 지역을 농생명산업지구로 조성해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 연구개발과 기업 입주까지 완성함으로써 "선 계획 후 개발"이라는 최초 사례를 만들었다.

또 가족방역관의 자격과 임명·위촉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께 따라 전국 최초로 '전북형 공수의 제도'를 도입해 민간수의사 7명을 의산·부안·정읍·남원 등 5개 거점에 배치했다. 부족한 수의직 공무원 문제를 일부 해소하고 도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한다.

특히 문화·관광·금융 분야에서는 지역 특성 맞춤형 성장 기반을 마련한 것도 눈에 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 무주·부안을 '야간

관광진흥도시'로 선정한 후, 부안 변산비치법 사업을 통해 변산해수욕장 방문객이 213%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무주는 세계관광청 주관 '25년 UN 최우수 관광마을로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거머쥐었다.

기반구축 분야에서는 행정 속도 개선으로 지역의 기회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산림복지지구 지정 권한이 산림청장에서 도지사로 이양되어 행정절차 이행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으며 도립공원 내 공원구역 해제(11만평) 및 자연환경지구 용도 전환(마을지구·문화유산지구, 9.7만평)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관광 인프라 조성했다.

이 외에도 14개 시군별 특화 특례를 통해 문화산업부터 첨단산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전주 한스타일 영상지구, 군산 새만금 고용특구, 의산 동물용의약품, 남원 ECO 스마트팜, 김제 고품질 논농생산, 진안 흥삼한방, 장수 저탄소 한우, 임실 임실 엔지니어링, 순창 미생물, 고창 김치특화, 무주 향로산 지구, 부안 운호리 지구, 경음 환경교육 시범도시, 완주 수소 경제 이행 특례 등 각 시군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맞춤형 산업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군간 연계사업 및 미래 핵심산업 분야의 특례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제도가 산업을 뒷받침하는 혁신 테

스트리드를 구축하고 확대된 규제 혁파

를 통해 전북형 지방시대 성공 모델을

완성해 나갈 방침이다.

전북특별법은 지역 및 연고 국회의원, 도의회, 시군, 중앙부처(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과 협업하여 일관성 성과인 만큼, 앞으로도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법 후속 개정 과정에서 정치권 등과 공조체를 본격 가동한다.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특례, 지방의료원 기부금품 모집 특례 등 정부와 협의가 끝난 17개 무생점 과제가 조속히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민이 체감 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가 시작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행정체계의 전환을 넘어 도민과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자치 모델의 실현 과정이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 국힘 도당 "여론조사 민주당 재선거 후보 낼 자격 없다"

### 경선 여론조사 왜곡 '조작적' 주장

### "반성 없이 재선거 출마 거론" 비판

### "지역 연고 없는 출마 개인 영당"

실화하고 있다"며 "이는 군산·김제·부안 시민의 신뢰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로 책임있는 정당의 최소한의 자격조차 저버린 행위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지역 현안과 무관한 외부 인사가 선거판에 등장하는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한 뒤 "군산·김제·부안 지역과 아무런 연고나 연결고리 없이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출마하는 행위는 오직 개인의 영당을 위한 정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이에 따라 "이번 사태로 인해 실망을 겪은 도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역의 현실을 이해하고 전북 발전을 위해 책임 있게 일할 정치인일 것이다"며 "국민의힘 전북자치도당은 "이번 재선거에 지역에 대한 애착이 있고 군산·김제·부안갑의 현실과 미래를 진정성 있게 고민해 온 인물을 발굴, 선거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정철 기자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가 14일 전북도청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 기념 브리핑을 진행

<사진=전북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 브리핑

하고 있다.

## 전북자치도, 도내 원폭피해자 1세대 60만원 지원

### 10호시마·나가사키 원폭피해자 조례 제정 후 첫 생활지원수당 지급 대상자 고령 고려 보건소가방문 접수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부터 일본 10호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거주 원폭피해자

1세대를 대상으로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10월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고령의 원자폭피해자들이 겪는 생활 부담을 덜고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전북특

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원자폭피해자 1세대 13명이다. 수당은 월 5만 원씩 지급되며, 분기별로 15만 원씩 연 4회(3·6·9·12월) 지급된다. 연내 신청할 경우 1월분부터 소급 적용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특히 최초

신청 시에는 대부분 고령인 점을 고려해 보건소에서 직접 대상자를 방문해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원자폭탄 피해자분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사회적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장정철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한밤중 기습 제명

### 윤리위 새벽 1시 의결 최고 징계

### 당 업무방해·명예 훼손 판단

국민의힘이 14일 새벽 한동훈 전 대표를 조작감사 등을 근거로 기습제명했다.

윤리위는 "본 사건을 중징계 없이 지나칠 경우 이 결정이 선례가 돼 앞으로 국민의힘의 당원계시판은 당 대표를 포함한 당직자 및 당원 자신과 그 가족들의 악성 비방·비난 글과 중상모략, 공론 조작 왜곡이 의명성과 표현의 자유의 이름으로 난무하게 될 것"이라며 "중징계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당원계시판 사건'으로 자신을 제명한 데 대해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다"면서 "국민, 당원과 함께 이번 계엄도 반드시 막겠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윤리위 결정을 뒤집고 다른 해결 모색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제명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 을 밝혔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의 오늘, 전북타임스와 함께



# 道, 메디컬푸드 메카 도약…대기업 30개사 한자리에

전북대병원 메디컬푸드 컨퍼런스

산학연관 전문가 참여 비전 공유

CJ·하림 등 제약 대거 참석

전국 유일 임상실증 플랫폼 '주목'

전북도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

받는 '메디컬푸드' 분야에서 선도적 행보를 보이며 식품·바이오 산업 지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전북도는 14일 전북대학교병원에서 '2026 메디컬푸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산·학·연·관 전문가 및 대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전북이 주도하는 메디컬푸드 산업 생태계의 비전을 공유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CJ제일제당, 하림, 지주, 오뚜기, 대상, 콜마글로벌, 매일유업, 대원제약, 종근당건강 등 국내 식품 및 제약 분야를 대표하는 30여개 기업들이 대거 참석하여 전북의 메디컬푸드

육성 전략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참석 기업들은 전북이 보유한 전국 유일의 임상실증 플랫폼과 풍부한 농생명 지원에 주목하며, 전북과의 전략적 협업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북은 케어푸드 산업을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메디컬푸드는 의료·식품·바이오가 결합된 고부가가치 핵심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 전북은 이를 중심으로 타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 산업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컨퍼런스 1세션에서는 글로벌 및 국내 시장 동향과 법안 제정의 필요성이 논의되었으며, 2세션에서는 전북대병원의 'R&D 임상실증 플랫폼'을 활용한 기업 지원 성공 사례가 소개되었다.

참가 기업들은 전북의 원스톱 지원 체



전북도는 14일 전북대학교병원에서 '2026 메디컬푸드 컨퍼런스'를 개최해 산학연관 전문가 및 대기업 관계자들과 산업 생태계 비전을 공유했다. <사진=전북도>

계가 메디컬푸드의 과학적 근거 확보와 산업을 선도할 충분한 기반을 갖추고 제품 상용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전북을 전 세계가 주목하는 메디컬푸드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선4기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전북은 의료·식품·바이오 역량을 결합한 메디컬푸드

/장정철 기자

## 내란특검, 윤석열 사형 구형…“전례 없는 헌법파괴”

결심공판서 구형 “반국가활동”

“장기집권 목적, 죄질 중대”

김용현 무기징역·노상원 30년 구형

내란특검이 지난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특검은 이날 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구연 부장판사) 심리로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박여수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

을 갖는다”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지적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난립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혐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면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성찰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가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또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실감하게 됐다”며 “감형 사유가 전혀 없고, 법정 형 중 최저형이 아닌 사형을 구형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특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협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한 혐의 등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겐 징역 20년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예전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밖에 노 전 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

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용근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현병대장(대령)

에는 징역 15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는 징역 12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는 징역 10년이 각각 구형됐다.

윤 전 대통령은 90분간에 걸친 최후진술에서 “숙청과 탄압으로 상징되는 광란의 칼춤”이라 부르며 “저도 과거 26년간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지만 이렇게 지휘 체계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여러 기관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수사하는 것은 처음 봤다”고 강력 반발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구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증거조사를 시작해 11시간 11분 만인 오후 8시 41분께 마무리됐다.

/서울=김영목기자

## 전북도, 제2경찰학교 등 남원시 핵심 협력 강화

공공의대 설립 등 ‘국비사업’ 속도

국립현대미술관 전북공유지 전 본격

전북도는 남원시와 협력해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린다. (관련기사 8면)

도는 14일 오후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2026년 시군 방문’ 행사를 열고 남원시 발전을 위한 주요 협력 현안을 공유했다. 이날 이 자리에서는 제2경찰학교 등 남원의 미래를 좌우할 사업들이 조명됐다.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사업은 제2

중앙경찰학교 유치다.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 일원 약 167만㎡ 부지가 후보지로 거론되며, 국공유지 100%라는 점에서 추가 토지 매입 없이 즉시 개발에 착수 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경찰청의 후보지 분석 및 사업방식 연구용역이 올해 2월 말 종료될 예정이다. 도는 남원

유치의 당위성과 임시 우위를 알리는 홍보를 강화하고 남원시와 함께 부지 실사 및 지자체 면접 등 2차 심사 대비 공동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경찰수련원 신축도 남원 유치 청사 진의 한 죽이다. 어현동 시유지에 국비

442억 원을 투입, 지하 1층 지상 4층 규

모 건립 구상으로 경찰청 중기사업계획에 이미 반영됐다. 해안이나 산간에 치우친 기존 시설과 달리 도심 접근성, 문화자원,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임지가 강점이다.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보건 의료대학 설립도 속도를 낸다.

남원의료원 인근 부지에 632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폐교된 서남 대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지역 필수·

공공의료 인력을 키워내는 것이 목표

다.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부 법안

소위에서 계류 중이며, 2026년 정부예산에 연구비와 설계비 39억 원이 반영되면 서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도는 상반기 법안 제정을 목표로 정부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2018년 개관 이후 지역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은 시립김병종미술관은 건물 노후화로 전면 보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도는 리모델링 공사비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1분기 설계를 마치고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한다는 일정이다.

국립현대미술관 전북공유지 경쟁도

본격화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기

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거쳐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인 가운데 도는 문제부 수요

조사에 적극 대응해 분관을 전북에 선점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 안호영 “예술작품 버리지 않는 전북 만들 것”

‘개방형 공공 예술수장고’ 조성

보존·전시·아카이브·유통 연결

‘작지만 중요한 공약’ 첫번째



재 등 미술관  
급 보존 환경  
을 갖춘 전문  
수장시설을 구  
축한다는 것  
이다. 수장 공간  
일부는 상시  
개방해 ‘보이  
는 수장고’로  
운영하고, 수장  
작품은 교체  
와 교육 프로그램  
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작품별 데이터베이스와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작가 동의 하에 작품 대여·전시·유통까지 연계함으로써 창작·보관·공유·활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안 위원장은 “이 공약은 대규모 개발 사업은 아니지만, 전북의 문화자산을 지키고 예술인의 창작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예술을 개인의 부담으로 방치하지 않고, 공공의 책임으로 끌어안는 전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품을 버리지 않는 전북, 예술을 공공이 책임지는 전북이 ‘작지만 중요한 공약’의 첫 시작”이라며 덧붙였다.

/서울=김영목기자

## 전북자치도,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현장 점검

자립 역량 지원 핵심 인프라 점검

노홍석 부지사 “현장 의견 적극 반영”

전북도는 노홍석 행정부지사가 14일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

를 방문해 자립생활 체험홈과 각종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를 직접 살피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 부지사는 이날 센터로부터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추진 현황 △장애인 친화 환경 조성 사업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뒤, 자립 지원 프로그램 전반을 폼 품히 살폈다.

이어 자립생활 체험홈과 프로그램을 차례로 둘러보며, 장애인이 실제 생활 속에서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운영 중인 현장 프로그램들을 점검했다.

특히 탈시설이나 보호자 고령화 등

노홍석 행정부지사는 “장애인의 자립은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삶의 선택권과 존엄을 보장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2024년 4월 개소 이후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점 기관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은지 기자

겨울철 전기제품  
안전하게  
사용하기

꺼진 불도  
다시 보기

1차량 1소화기  
갖기

# 광역도로망 확충·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집중'

## 전주권 광역도로망 구축 추진 지역 건설사 참여 확대

전주시가 2026년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광역도로망 확충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재난·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생활환경 개선에도 힘써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로 나갈 방침이다.

시는 14일 건설안전국 신년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안전·도시 분야 5대 중점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과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한 5대 중점 추진

방향은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추진 △지역 건설사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주거 안정 지원 △하천 및 생활환경 정비 등이다.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될 경우, 그 동안 지방재정 부담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광역도로와 연결망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또, 교통혼잡 완화와 이동 시간 단축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교통 서비스 수준과 정주 여건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시는 내다 보고 있다.

여기에는 △용진~우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상관~색장 외곽순환도로 구축 등 광역도로망 확충 사업을 통해 시민 생활권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회이다.

시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시는 도시지역 내 공동주택 건설 시 지역 건설사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전주시 지구단위 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함으로써 지역 업체의 참여 비중을 높이고 건설 현장의 험력이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만들기로 했다.

시는 재난 대응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재난안전상황실 역량을 강화하고, 상황 대응매뉴얼 재정비와 유관기관 간 상황 공유체계를 확립해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또 시민안전보험과 풍수해보험 운영, 집중 안전 점검과 안전한국훈련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사회재난 예방 체계도 구축한다.

/정소민 기자

## 우범기 시장 '2026 대한민국 전주정원산업박람회' 추진 점검

### 덕진공원 입구 작가정원 배치 대형 정원축 조성도 구체화

우범기 전시장은 14일 덕진공원 '2026 대한민국 전주정원산업박람회' 장소를 찾아 정원 배치 위치 선정과 박람회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시는 전주월드컵광장 일원과 덕진공원

일대 7만m<sup>2</sup>를 연계한 대형 정원축을 조성해 시민 휴식과 관련 산업 육성의 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박람회를 통한 정원 조성 규모는 △코리아가든쇼 작가정원 5곳 △기업동행정원 1곳 △서울 우호정원 1곳 △시민정원 38곳 등 총 45곳으로 확대된다.

우 시장은 이를 통해 새로 조성되는 정

원을 덕진공원의 상징적인 공간이자, 전통성과 수변 경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새로운 명소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박람회를 통해 정원산업 전시와 전 연령 참여 프로그램, 시민 가드닝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더불어 주요 행사장인 덕진공원과 월드컵광장을 정원·관광 복합공간으로 육성하고, 전주만의 정원산업 모델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우 범기 전시장은 '덕진공원을 비롯한 도시 곳곳에 다양한 정원이 조성돼 대한민국 정원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출향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 전주시, 출향·전입 채용기업 청년 장려금 지원

전주시가 청년이 찾아오고 머무는 활기찬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고향을 떠난 청년과 타지역에서 전입한 청년들을 채용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키로 했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청년들의 지역 유입·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기업의 청년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출향·전입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공개 모집

한다.

사업은 전주지역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업이면서 상시 고용인원 외에 추가로 출향청년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 중 매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올해 지원되는 취업청년 인원은 10명 정도이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39세 이하 전주시 전입 청년으로, 참여기업에서 6개월 미만 근무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은 △과거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

했던 자로 전북특별자치도 외 타 시군구에서 최근 1년 이상 거주한 청년(출향) △전북특별자치도 외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전주시로 전입 의사가 있는 청년(전입) 중 채용약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신고가 가능한 청년이 자격요건에 해당된다.

또, 채용약정일 전 1년 이내 전주시로 전입신고가 된 청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대상자는 사업 기간 중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등 주민등록상 주소

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자격요건을 갖춰 최종 선정된 기업은

매월 100만원씩 수습 2개월을 포함해 최

대 12개월간 채용지원금이 지급되며,

사업에 참여한 청년취업자에게도 2년 근속

시 최대 900만원의 취업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전주시 누리집

(www.jeonju.go.kr)를 참고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 전주시-에어로케이항공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 논의

### '바이럴마케팅'으로 관광객 빨길 유인

전주시가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항공사 '에어로케이(Aero K)'와 협력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본격화 한다.

시는 지난 13일 에어로케이항공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주공항 국제선 입국객을 전주로 유입하기 위한 공격적인 공동마케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에어로케이가 △

일본(도쿄, 오사카 등) △중화권(타이베이, 칭다오) △동남아(나트랑, 담강, 클락) 등 다양한 국제선 직항 노선을 확대함에 따라 이를 전주 관광 수요 창출의 기회로 삼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 △기내지·좌석 활용 전주관광자원 홍보 △온라인플랫폼(SNS) 연계 홍보 △현지 여행업계 및 인플루언서 초청 펌투어 공동 진행 등 구체적인 협력 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당장 시는 에어로케이의 기내 챠터와 온라인플랫폼(SNS) 등을 활용해 전주의 매력을 알리는 공동 마케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에게 전주가 매력적인 여행지임을 인식시킨다는 구상이다.

또 에어로케이 취항 국가인 중국과 대만, 베트남 등의 관광객 특성을 반영한 '전주특화관광상품' 개발 및 현지 인플루언서를 초청하는 공동 펌투어를 기획해

직접 전주를 경험하고 제작한 콘텐츠를 현지에 확산시켜 실질적인 방문으로 이어지게 할 예정이다.

시는 에어로케이와 긴밀한 실무 협의체를 가동하여 급변하는 여행 트렌드에 대응하고, 전주 주요 축제 등과 연계한 공동 홍보마케팅 추진 등 협력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 농식품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발표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축산물 유통은 그동안 도축·가공·판매 일원화, 도축장 구조 조정, 시설현대화 등을 통해 기반 및 구조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됐지만 일부 비효율적인 유통구조 및 사육·거래 관행 등으로 축산물 산지가격이 하락해도 소비자물가에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대응해 'K-농정협의체' 및 품목별 생산자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에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비효율성을 개선해 생산비를 낮추고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4대 중점 과제와 10개 세부 추진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 전주완산소방서, 신임 소방사 실전형 관서 실무실습 운영

### 현장 중심 소방업무 이해 실전 대응 역량 강화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지난 1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3주간 소방사 신임교육 과정 교육생 10명을 대상으로 관서 실무실습을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소방업무 이해와 실전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

현재 실습에 참여 중인 신임 소방사들은 화재진압, 구급, 구조 행정 등 전부서를 순환하며 실제 출동과 관서 운영 전반



을 직접 경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론 교육으로는 체감하기 어려운 소방 현장의 긴장감과 하루의 업무 흐름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있다.

실습 기간 동안 교육생들은 단순 참관이 아닌 실무 보조 중심의 실습으로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주완산소방서는 실습 기간 동안 신임 소방사들이 지역 특성과 관서 운영 체계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지원하고, 향후 실무 배치 시 현장에 즉시 적응할 수 있는 현장 친화형 소방 인재 양성에 힘쓸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 글로벌 인재양성 영어능력 장학생 5기 모집

### 26일부터 2월 6일까지 공모

전주시가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쳐나갈 글로벌 우수 인재 발굴에 앞장선다.

이를 위해 시와 (재)전주인재육성재단은 오는 26일부터 2월 6일 까지 글로벌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제5기(2026-1기) 전주시 글로벌 인재 양성 영어능력 강화사업 장학생'을 공개 모집한다.

사업은 글로벌 마인드와 애ه심을 지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말하기 위주의 국내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단기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프로그램은 △어학 집중코스와 자체평가, 우리 지역 탐방 등으로 구성된 4개월 과정의 국내 연수 △글로벌기업 및 대학투어, 해외도시 투어 등 약 2~3주 과정의 국외연수 △개인 활동 보고서 작성 및 보고회 등 1~2주 과정의 활동 보고로 진행된다. 연수 국가는 미국 등 영어권 국가이다.

선발인원은 10명(도내 대학생 7

명, 도외 대학생 3명)이며, 이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1명을 선발한다. 연수생 자부담 비용은 1인당 200만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면제된다.

지원 자격은 고교일 기준으로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전주시민의 자녀로서 전북특별자치도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등학교 검정고시 졸업자격을 합격한 대학생이다. 성적은 직전 학기 B+이상이어야 하며, 선발될 경우 어학연수 참여를 위해 2026년도 1학기를 휴학해야 한다.

장학생 선발은 1차 서류심사를 통해 학업성적 30점과 어학자격증 20점, 생활정도 20점을 기본으로, 지원부사 실적 최대 1.5점을 가산점으로 반영해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게 된다. 이후 2차 면접 심사 30점을 합산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장학생이 선발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 또는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의회는 14일 의장실에서 전주 덕진경찰서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 치안 강화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 지역 치안 강화에 전주시의회-전주덕진경찰서 "다짐"

### 남관원 의장·조영일 서장,

### '시민체감안전한 전주 만들기' 협의

전주시의회는 14일 의장실에서 전주 덕진경찰서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 치안 강화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김영태 기자

## "겨울철 차량화재, 차량용 소화기 생명을 지킵니다"

### 전주덕진소방서,

### 겨울철 차량화재 예방 홍보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권기현)는 겨울철 차량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안내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기온 급강하로 히터 사용이 늘고 배터리·전기계통과 연료계통에 부담이 커지면서 겨울철 차량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차량화재는 주행 중이나 정차 중 예고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짧은 시간 안에 전소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국가

# 전북 '25년 소비자상담·피해구제 18,164건'

## 가장 많이 접수된 피해 품목 '의류'…'정보통신서비스' 2순위 급증

2025년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피해구제는 18,164건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은 피해품목 '의류·섬유신변 용품·정보통신서비스'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장 많이 접수된 소비자 피해 품목은 1,771건(9.8%)이 접수된 '의류·섬유신변용품'이다.

지난해 대비 비중은 3.2%p 감소했으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의류 구매 후 배송 지연 및 불이행 관련 상담이 지속적으로 접수되며 4년 연속 1

순위를 유지했다.

'정보통신서비스'가 1,740건(9.6%)으로 피해품목 2순위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7.4%, 4순위) 대비 2.2%p 증가한 수치로, 주로 온라인 광고 대행 관련 계약 해지 위약금 분쟁 및 주요 통신사의 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가 급증하며 순위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식료품·기호품 1,728건(9.5%) 문화·오락서비스 1,467건(8.1%) 기타서비스 1,453건(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료품·기호품의 경우 전화권유를 통한 건강식품 구매 후 반품 거부 사례가 많았으며, 문화·오락서비스는 아고다 등 해외 숙박 플랫폼 및 헬스장 중도 해지 관련 위약금 문

제가 주요 피해 원인으로 파악됐다.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게 된 판매 방법을 분석할 결과, 일반판매 6,957건(38.3%) - 국내온라인거래 4,486(24.7%) - 기타거래 2,624건(14.4%) - 기타통신판매 961건(5.2%) - 전화권유 911건(5.0%) 등이 순으로 확인됐다.

소비자 연령대로 분석했을 때, 50~59세 연령이 전체 상담의 4,337건(2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40대 4,285건(23.6%) - 60대 3,544건(19.5%) - 30대 3,299건(18.2%) - 20대 982건(5.4%) 등의 순이었다.

50~60대 중장년층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시니어 소비자지킴이' 8명을 전주지역 7개

노인복지관에 파견해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및 원스톱 피해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체 상담 중 여성소비자 상담이 9,707건(53.4%)이었으며, 남성 소비자 상담은 8,457건(46.6%)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상담 사유를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상담 3,677건(%) - 단순문의·상담 2,965건(%) - 계약불이행 2,851건(19.1%) - 품질(물품/용역) 2,711건(%) - 청약철회 2,18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도설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내 등의 상담업무처리는 10,564건(58.1%)이었으며, 중재 및 피해처리가 진행된 건은 7,600건(41.8%)이었다.

/정소민 기자



##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지역인재 19명 채용

### 전북지역 출신 인재 '강화'

를 시작하게 된다.

농협은행 전북본부는 '12년 은행과 중앙회의 사업 분리 이후 400여 명의 지역인재를 채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재육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지역인재 19명을 지난 14일 신규채용 했다고 밝혔다.

선발된 19명의 신규 직원들은 한 달간의 교육연수를 마친 뒤 전북 관내 농협은행 영업점에 배치돼 근무

/김영태 기자

# 전기안전공사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관리' 향상 세미나

## 충전사업자 46개사 참여 법령 등 최신정보 공유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13일 서울 신촌비즈센터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안전관리 향상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부 및 충전 사업자 46개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충전시설 전기안전관리 제도 동향을 공유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충전시설 신고 및 보험 제도

등 법령 개정 사항 △법정 검사 업무처리방법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개정 사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안) 등과 관련된 내용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종합해 제도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정부 및 관련업계와 협업을 통해 안전관리 기준을 보완·강화해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남화영 사장은 "전기차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충전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13일 서울 신촌비즈센터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안전관리 향상 세미나'를 개최했다.

# 농식품부 '25년 모태펀드 운용 성과 점검'

## '26년 2470억원 규모 이상 자펀드 결성

지난 13일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농식품 모태펀드 출자전략협의회'를 열고 '25년 모태펀드 운용 성과를 점검했다.

이와 관련해 '26년 출자 방향과 중점 투자 분야 확정과 투자 활성화 위

한 규제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농식품 모태펀드는 총 13개 자펀드를 통해 3179억원 규모로 결성 하며 '10년 출범 이후 연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1169억원 상회한 규모로서 국내외 투자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농식품 분야에 대한 시장 신뢰와 민간의 높은 관심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민간투자 비중은 전년 44.5% 대비 20.1%p 증가한 64.6%로 정책자금을 미중물로 한 민간자본 유입 효과

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청산이 완료된 27개 자펀드의 누적 내부수익률(IRR) 역시 7.2%로 장기적인 정책금융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성과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26년 2470억원 규모 이상의 자펀드를 결성해 농식품 분야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미래 성장동력 분야별로는 △스마트 농업·그린바이오·푸드테크 등 신산업

분야에 1000억원 △청년기업 투자에 480억원 △세컨더리펀드 조성에 350억원 △농식품 일반 분야에 3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240억원 △민간 제안 분야(유동)에 1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술 기반 농식품 기업의 성장 △청년 인재의 농촌·농식품 산업 유입 △지역 기반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정책 목적 투자와 시장 수요 연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태 기자

# 올해 사과 꽂눈분화율 '후지' 53% '홍로' 78% 수준

## 농진청, 꽂눈분화율 확인 후 가지치기 강조

농촌진흥청 이승돈 청장은 올해 사과 주산지 꽂눈 분화율이 '후지' 53%, '홍로' 78%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청장은 품종별 차이가 큰 만큼 농가에서는 각 과수원 꽂눈 분화율을 확인한 뒤 가지치기할 것을 강조

했다. 꽂눈 분화율은 나무가 잎과 가지를 키우는 영양생장에서 꽃과 열매를 맺는 생식생장 단계로 전환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또 가지치기 정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연구진은 2025년 12월 19일부터 2026년 1월 2일까지 경북, 경남, 전북, 충북의 관측 농가 10지점을 대상으로 꽂눈 분

화율을 조사했다.

그 결과 '후지'의 꽂눈 분화율은 53%, '홍로'는 78%로, '후지'는 평년보다 7% 낮았고, '홍로'는 10%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홍로'는 9월 수확기까지 기상 조건이 양호해 꽂눈 분화가 원활했지만, '후지'는 9월 이후 열매가 달린 상태에서 고온이 지속되고 비가 잦아 꽂눈 분화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과수원 꽂눈 분화율을 확인해 분화율이 65% 이상으로 높다면 열매솎기 작업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평년보다 강하게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

분화율이 60~65% 정도라면 평년과 비슷하게, 60% 이하로 낮다면 수확량 감소가 우려되므로 열매가지를 충분히 남겨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

/정소민 기자

## 한국발명진흥회 전북지부,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 2월 19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이상 소지자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이 2026년도 미래 농업 혁신 이끌 연구직 공무원 20명을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선발할 예정이다.

2026년도 연구직 공무원 모집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진행된다.

올해는 △인공지능(AI) 기반 육종 모델링 △기후변화 대응 △농작업자 안전 등 전문가 채용에 중점을 두어 직류별 △농업환경 △작물보호 △생명 유전 △작물 △원예 5개 직류에서 총 2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대상은 18세 이상(200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관련 전공 석사 학위

/김영태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 '2030 KBIZ 디지털전략' 수립

## 'DATA' 연결 'AI' 실현 2030 KBIZ 비전 제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할 '2030 KBIZ 디지털전략'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돌입했다.

이번 전략은 21대 정부의 AI 대전환 정책에 발맞춰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다.

중앙회는 'DATA로 연결하고 AI로 실현하는 2030 KBIZ'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해 AI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비전의 '2030'은 5개년(2026~2030년)을 뜻하는 동시에, 민첩하고 창의적인 '2030세대'를 상징하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

이번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지식이 연결되는 조직', 중기적으로는 'AI가 업무 파트너가 되는 조직', 장기적으로는 'AX

생태계 중심이 되는 조직'을 목표로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미래형 업무 환경 기반 AX △중소기업 협력 체계 확보 DX 촉진 △지능형 위협 대응 정보 보호 역량 강화 △데이터 통합 기반 가치 창출 △스마트지향 인프라 고도화 △디지털 혁신 선도 조직 역량 확보의 6대 전략을 수립했으며, 이를 전략 아래 14개 전략과제와 33개 추진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AI의 핵심 원료인 데이터를 위 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데이터플랫폼 구축을 시작으로 데이터, 인프라, 서비스, 거버넌스 등 모든 디지털 영역을 빠르게 채워나가고자 한다.

정운열 디지털혁신본부장은 "디지털 전략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전략 실행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회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전했다.

/정소민 기자

글로벌 IP 스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맞춤형 IP 지원이 제공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해외 권리화(출원·OA·등록) 비용지원 △특허허점(심화), 브랜드·디자인 컨버전스 △제품·포장·화상디자인 개발, 품질보증, 디자인 특허 등으로 사전 컨설팅 결과와 기업 수요를 반영해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아울러 이들 기업은 글로벌 IP 스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조고속 우선 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신속한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초고속 우선심사는 특히 및 실용신안 출원의 경우 1개월 이내, 상표 출원의 경우 30일 이내에 1차 심사 결과를 제공하는 제도로, 해외 진출 전략을 신속히 수립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6년 2월 19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신청 시스템(www.ripc.org/pms)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 2026 전북도 초등 신입생 예비소집 '실시'

## 지난해 대비 916명 감소…미참석 아동 중 1명 경찰 수사 의뢰

2026학년도 전북지역 초등학교 신입생 총 9243명에 대한 예비소집이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실시됐다.

2026학년도 전북도 초등취학대상 아동은 △전년도 조기입학 △외국국적 아동 등을 포함해 9243명이다.

아울러 2026년도 초등 신입생은 2025년 10,159명 대비 916명 9%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예비소집 대상 아동 4명 '전주 2

명', '남원 1명', '무주 1명'에 대한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파악되지 않은 아동들에 대해 특별소재확인에 나서며 각 지지체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특별소재확인 결과 아동 451명 중 취학유예·면제, 부모와 해외출국 등의 사유에 따른 미참석으로 밝혀졌다.

특히 4명 아동 중 3명은 해외 출국 및 다른 지역으로 전출했으며 아동 1명에 대해서는 파악이 어려워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유선 연락·관계기관 협조 통해 취학 대상 아동 안전을 확인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이들이 정상적으로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전북교육청 '스마트기기 양품화 사업' 추진

### ESG 경영 실천 앞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겨울방학 기간을 활용해 '스마트기기 양품화 사업'을 추진,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 환경 조성과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선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북교육청이 도내 학교에 일괄 보급한 태블릿, 노트북 등 스마트기기 졸업 학년의 기기 47,900여 대를 수거해 양품화 과정을 거쳐 초 4, 중 1, 고 1 학생들에게 재배부하는 지원 리사이클링 프로젝트다.

전북교육청은 스마트기기 양품화 작업장을 구축, 성능을 고도화하는 체계적인 공정을 운영하고 있다.

수거된 기기는 △기능점검 및 수리

△데이터 완전 삭제 및 포맷, 응용SW 초기화 설치 △해당 학교 맞춤형 스마트기기 재설정 △외관 세척 및 소독 △성능 점검 등의 과정을 거쳐 새 기기에 준하는 상태로 재탄생된다.

도교육청은 실시간으로 양품화 작업 진행률을 관리하며 기기를 전수 검사하고 있으며, 2월 말까지 배부를 완료해 학생들이 3월 새 학기 첫 수업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선화 미래교육과장은 "우리 학생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새 학기 전까지 보급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 전북교육청 '학교회계 실무능력 ↑ 예산이월 ↓' 목표

### 13~14일 학교회계 결산 교육 학교재정 집행률 99% 달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학년도 학교(교비)회계 결산을 앞두고 지난 13~14일 이를간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2025학년도 K-에듀파인 학교회계 결산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업무 담당자들이 결산 과정에 서 겪는 실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복잡한 업무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돋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교육은 K-에듀파인 시스템을 활용한 결산 처리 방법을 안내해 결산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북교육청은 적기에 교육재정을 지원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에 기여하기 위해 단위 학교의 재정집행을 독려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5학년도 학교(교비)회계 재정 집행률 99% 달성을 목표다.

이와 함께 지난 연말에는 학교 예산과 관련한 동영상 교육자료를 제작, 누리집에 탑재해 신규 및 저연차 업무 담당자가 언제든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곤 예산과장은 "학교회계 시스템 숙달을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철저한 결산 관리와 불용액 최소화로 교육재정이 한층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학년도 학교회계 결산을 앞두고 13~14일 이를간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2025학년도 K-에듀파인 학교회계 결산 교육'을 실시했다.

## 전북현대 N팀, 천안시티FC 출신 이상명·최진웅 동시 영입

### 젊은 수비진 강화로 미래 경쟁력 확보

전북현대는 천안시티FC에서 활약한 수비수 이상명(23)과 최진웅(22)을 동시에 영입하며 N팀(B팀)의 전력을 한층 강화했다.

이번에 합류한 두 선수는 모두 2025년 천안시티FC에서 프로 무대에 데뷔해 신인답지 않은 기량을 선보이며 K리그의 주목을 받은 유망주들이다.

특히 수비수인 이상명(2003년생)은 181cm, 81kg의 탄탄한 피지컬을 바탕



으로 한 스피드와 파워가 압권이다. 지난 해 프로 데뷔 첫 해 임에도 불구하고 33경기에서 출장해 첫 활약상을 기록했다.

이상명은 적극적인 수비 스타일과 타율한 인터셉트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우측 풀백(RB)은 물론 중앙 수비수(CB)



까지 소화가 가능한 멀티 차원이다. 지난해 18경기에 출전하며 기능성을 인정받았으며 희소성이 높은 원발 센터 백 선수로 키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북현대는 이상명의 다재다능함이 팀의 전술 운용에 큰 활약소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함께 영입된 최진웅(2004년생)은 186cm의 우수한 신체 조건을 갖춘 센터백이다.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출전한 전북 선수단이 첫 금메달을 수확했다.

14일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다음달 25일부터 28일 까지 펼쳐지는 제107회 전국동계체전을 앞두고 빙상 종목이 사전경기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정유나(한국체대)가 금메달 1개와 동메달 1개를 수확했다.

여자 대학부 스피드 스케이트 3000m에 출전한 정유나는 4분25초52를 기록, 2위를 기록한 선수와 16초94에 달하는 높은 격차로 금메달을 차지하며 대학부 최강자의 면모를 재확인했다.

이는 지난해 전국동계체전에 이어 2연패를 달성한 것.

정유나의 주종목은 3000m이며 현재 대학부에서 정 선수의 기록을 따라오는

선수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앞서 정유나는 먼저 펼쳐진 매스스타트 경기에서도 동메달을 차지하기도 했다.

이 같은 성과 뒤에는 전북체육회의 지원도 한몫했다.

정유나는 고등학생 선수 시절 재능이 뛰어나고 유망한 선수를 세계적인 선수로 발전·성장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도체육회의 월드스타 육성사업에 선정돼 각종 지원을 받기도 했다.

/장정철 기자

# 산불 예방 캠페인

## 전북타임스와 함께하는 산불 없는 전북만들기

산에 갈 때 불씨를 남기지 마세요!

쓰레기 소각은 반드시 금지하세요

산불 위험 시 입산을 자제하세요

산불 발견 즉시 119 또는 관할 산림관서에 신고하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곧 우리의 미래를 지립니다. 산불 예방, 지금 바로 시작 합시다



익산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4만 5천여 건 8억 1천 8백만 원 부과

익산시는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만 5,158건, 총 8억 1,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부과 세액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등 면허 4종이 신설되고 무선국 허가와 통신판매업 면허 소지 증가로 전년 대비 약 600만 원이 증가했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일반음식점, 약국, 학원, 동물·곤충관련업, 물류자동차 운송업(용달), 여객자동차 운송업(택시) 등 개별 법에서 정한 각종 인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 면허소유자다.

면허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1월에 정기 분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전년도 12월에 신규 면허를 받았거나, 올해 1월 1일 이후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도 납부 대상에 해당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 간편납부를 이용하면 된다. 전자고지 신청자는 종이 고지서를 기다릴 필요 없이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즉시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채소·화훼·버섯 농가  
스마트팜 장비 설치 지원

정읍시가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서두른다. 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생산성은 높이고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2026년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농업 시설에 ICT 기술을 접목해 농작물의 생육 환경을 원격·자동으로 관리함으로써, 노동력 절감과 품질 향상을 동시에 꾀하는 정밀 농업 실현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기존 온실에 첨단 장비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세 가지 핵심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우선 시설원에 현대화를 위해 △자동개폐기 △환풍기 △차광시설 △무인방제기 △양액배수시설 등의 설치를 돋는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30일까지 사업 대상지 소재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유예기간 종료

군산시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유예기간이 오는 18일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는 유예기간 내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하며,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에 신고까지 마쳐야 한다.

해당 제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에 대해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해 정기적인 유지보수 및 성능점검을 의무화했다.

군산시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애 예방을 목적으로 도입된 이번 제도를 바탕으로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신고를 접수·확인하고, 관할 건축물의 유지보수 의무 이행 여부를 관리한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는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군산시는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신고 접수와 함께 유지보수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 익산시, 구직 단념 청년과 함께한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중·장기반 130명 모집  
27일 중기 1기 개강

익산시가 청년들이 다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도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익산시는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자립과 사회 진출을 돋기 위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중·장기반' 참여자 130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참여 대상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18~39세

청년이며, 올해는 총 130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익산청년시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여자는 5주마다 참여 수당 50만 원을 받는다. 중·장기 프로그램 이수 또는 취·창업 시 최대 70만 원의 추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조건을 충족하면 중기반은 최대 220만 원, 장기반은 최대 350만 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오는 27일 중기반 1기 개강을 앞두고 현재 중기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후 중기반(15주)과 장기반(25주)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운영해 더 많은 청년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학업 중단, 장기 미취업 등으로 사회와 단절된 청년들에게 진로 탐색, 역량 강화, 심리 회복을 지원하는 통합 프로그램이다. 시는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지원을 받아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운영되는 중·장기반은 개별·집단 상담, 진로·직무 탐색, 취업 역량 강화 교육 등 청년의 상황과 단계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단기 취업 연계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인 자립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 정읍시, 농기계 임대료 '반값' 혜택 연장

12월 말까지 50% 감면

반값에 이용할 수 있다.

정읍시가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2026년 12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시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려던 임대료 감면 정책을, 여전히 지속되는 농촌의 경제적 어려움과 농산물 생산비 증가 문제를 해소하고자 연장해 기다렸다.

이에 따라 정읍 지역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관내 5개 임대사업소가 보유한 95종 1618대의 모든 기종을

이번 정책은 그동안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보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7만 8984농가가 9만 3929대의 농기계를 임대했으며, 감면된 임대료 규모는 10억 6000만원에 달한다. 시는 이번 연장 조치로 약 1만 6000여 농가가 2억 2000만원 상당의 추가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강용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이 힘든 시기를 보내는 농가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2026 군산시간여행축제 '본격 준비'

오는 10월 군산시간여행  
마을 일원서 개최

군산시가 올해로 열네번째를 맞는 군산시간여행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2026년 제1차 군산시간여행축제 추진위원회를 열어, 2026년 축제 일정을 의결했으며 향후 축제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추진위원회는 2026년 군산시간여행축제를 10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시간여행축제만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차별성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축제 프로그램을 발굴해 축제를 찾는 방문객에게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해 주기를 당부했다.

김영민 군산시 부시장은 "추진위원회



와 함께 군산시의 역량을 결집해 축제만의 독창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관광객과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재미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5 군산시간여행축제는 13만 5,000명이 방문했으며, 69억 원의 경제

적 파급효과를 발생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5년 피나를 어워즈 한국대회에서 멀티미디어 부문 금상을 수상하는 등 차별화된 콘텐츠와 기획으로 인정받고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 정읍시, 글로벌 청년 겨울캠프 첫 운영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정읍시가 겨울철 관광 비수기를 타개하고 정읍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놨다. 시는 농한기를 맞아 비어있는 농업 근로자 기숙사를 활용해 외국인 유학생들을 유치하는 '정읍 글로벌 청년 겨울캠프'를 기획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오는 19일부터 2월 14일까지 총 4주간 이어진다. 2주씩 두 차례

(기수)에 걸쳐 진행되며, 각 기수에는 외국인 유학생 30명과 이들의 활동을 지원할 한국인 서포터즈 10명 등 총 80명이 정음을 찾아 머무르게 된다.

이 사업은 그동안 가을에 집중됐던 정읍의 관광 구조를 개선하고, 겨울철에도 관광객의 체류와 소비가 이어지는 새로운 관광 모델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공유재산의 똑똑한 활용'이다. 시는 농업계열근로자가 입국하지 않는 겨울철에 비어있는 공공기숙사를 참가자들의 숙소로 제공했다. 시는 이번 프로그램의 핵심 대상은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으로

설정했다. 이들이 단순한 방문객에 그치지 않고, 정읍에 머물며 직접 경험한 매력을 전파하는 확산형 홍보 구조를 설계한 것이다.

참가자들은 캠프 기간 내장산 국립공원과 구절초 지방정원,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등 지역의 대표 명소를 탐방한다. 또한 겨울 농촌 체험과 전통문화 습득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개인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콘텐츠 제작과 템파 과제(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청년의 시각으로 정읍 관광을 국내외에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 군산시 '맞춤 인구정책' 인구감소세 개선

출생·혼인 지표 반등·직업  
중심 인적 순환 활성화

군산시는 인구감소 흐름이 안정적인 완화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출생과 혼인 지표가 반등하면서 지역 경제와 고용 역동성이 강화되는 등 인구 구조 개선의 전환점이 확인됐다.

2025년 12월 31일 군산시 기준 인구는 25만 6,291명으로, 2023년 24,877명에 달했던 인구 감소폭이 2024년 1,933명, 2025년 1,756명으로 완화되며 감소세 둔화 흐름을 3년 연속 유지하고 있다.

또한 18~30세 청년 인구의 순이동 개선이 전체 인구 감소세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인구감소 폭은 2023년 2,514명, 2024년 1,618명, 2025년 1,174명으로 감소 규모가 지속 축소됐고, 30대 청년층은 2025년 순유입(+53명)으로 전환되며 지

역 정착 가능성이 확인됐다. 인구 유입의 핵심 요인은 직업 기반의 사회적 이동으로 전략산업 중심의 일자리 확대를 통해 충남 지역 250명, 전남 지역 122명이 군산으로 순유입되며 산업·고용·정주가 결합된 인구 유입 구조가 강화됐다.

군산시는 구직 단계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면접정장 무료대여 △지역정책수당(453명) △청년활력수당(292명) 등 취업 전후 과정을 지원하며, 사회적 이동과 정착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출생과 혼인의 반등 흐름 역시 도시 생태계 전반의 기반 정착이 복합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군산시는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SOS 틈새돌봄센터를 운영하며 아간·휴일 돌봄체계를 강화했고, 공동육아나눔터 확대로 초등돌봄과 놀이 인프라를 확충해 왔다. 2020년부터는 일상 부담 완화를 위한 가사 지원체계 도입이 본격 추진된다.

2월부터 시작되는 '군산형 가사서비스' 정책은 맞벌이·신혼·다자녀 가구의 생활 안정과 정착을 동시에 지원하며, 출산 장려를 넘어 출산 가능 여건을 도시 차원에서 보장하는 체감 정책으로 설계된다.

주거 목적 전입은 전년 대비 312명 증가하며 유입 요인으로 확대됐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107가구) △청년월세 특별지원(902명) 등은 청년과 신혼 가구의 주거 불안을 낮추고 초기 정착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했다.

찾아가는 인구정책 현장 대화는 임산부, 학부모 등 생활 기반 계층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정착 수용성과 행정 신뢰를 높이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군산시는 출생·혼인 반등 흐름과 고용 기반 사회적 이동의 활성화를 도시 인구 생활 기반의 구조 개선으로 연결해, 청년부터 신중년, 고령 가구까지 전 세대가 정착할 수 있는 정주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 혈액원에 전달했으며, 혈액원은 지원받은 상품권을 현혈 현장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배부할 예정이다.

현혈 운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현혈의 집 군산센터 또는 관내 단체 현혈버스를 방문하면 된다. 군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현혈 권장 사업은 생명 나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무엇보다 참여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는 14일부터 관내 혈액 관리기관(현혈의 집 군산센터 및 대안 적십자사 현혈 버스)에서 현혈을 완료한 모든 시민에게 군산사랑상품권 지급 1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민들의 현혈 참여를 독려해

# 고창,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초과달성

지난해 8억4천만원 달성... “컨설팅·교육 인식개선 등 노력”

고창군이 지난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법정 의무 구매율을 초과 달성하며,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 서고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 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액의 1.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고창군은 이러한 법 정 기준을 넘어, 전년도 총 구매액 대비 1.13%에 해당하는 약 8억4000만원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

△교육·컨설팅 중심의 체계적 행정=고창군은 우선구매율 달성을 위해 구매 담당자의 인식개선과 역량 강화를 핵심 전략으로 삼았다. 전북특별자 치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 주관 한 전문 컨설팅을 통해 부서별 구매 가능 품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구매 연 계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주관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를 찾아



다양한 생산물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중심의 구매 정보와 최신 정책 동향을 공유하면서 실효성 있는 구매 확대를 설득해 나갔다.

△내부 시스템을 활용한 구매 독려=고창군은 행정 내부의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 매주 스마트정책회의를 통해 구매 담당자의 인식개선과 역량 강화를 핵심 전략으로 삼았다. 전북특별자 치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 주관 한 전문 컨설팅을 통해 부서별 구매 가능 품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구매 연 계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주관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를 찾아

△내부 시스템을 활용한 구매 독려=고창군은 행정 내부의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 매주 스마트정책회의를 통해 구매 담당자의 인식개선과 역량 강화를 핵심 전략으로 삼았다. 전북특별자 치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 주관 한 전문 컨설팅을 통해 부서별 구매 가능 품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구매 연 계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주관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를 찾아

/고창=백종규 기자

## 부안군의회, 새해 첫 임시회 개회

상반기 군정 보고 청취 조례안 등 심의·의결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는 14일 2026년 새해 첫 임시회를 개최하고, 오는 23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상반기 군정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김두례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정책 폐리다임의 전환 제안’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현행 관광정책만으로는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청년 크리에이터 중심의 흥보체계 구축 △관광객 체감형 ‘부안형 반값여행’ 도입 △콘텐츠·운영 중심의 소프트웨어

관광정책 전환 등 새로운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병래 의장은 “2026년 첫 임시회를 시작하며 올해는 계획이 아닌 실행의 해로 군민의 삶에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부안군의회는 집행부와 협력해 군민의 목소리를 기준으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부안=신상수 기자

## 김제시, 미취업 신중년 일자리 제공 힘써

취업지원사업 기업 모집 기업근로자에 지원금 지급

김제시는 미취업 신중년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 근로자 3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김제시 소재 기업으로 월급여 최저임금 이상 지급 가능한 업체여야 하며, 40세

~69세 신중년 미취업자를 모집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규 채용하거나 공고일 기준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신중년을 고용 중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 대상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기업에 월 70만원씩 최대 1년간 고용지원금을 지원하며, 사업에 참여한 신중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2년간 3회(6개월, 1년, 2년)에 걸쳐 최대 200만원의 취업장려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20일까지 시청 경제진흥과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경제진흥과 일자리 창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을 통해 신중년층의 지속적인 사회참여 및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신중년층에 대한 지원 및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 부안미디어센터, 2026년 제1기 교육생 모집

기초~AI 콘텐츠 제작까지 생활밀착형 실습 강화

부안미디어센터는 군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제1기 미디어교육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2월부터 4월까지 운영되며 기초 디지털 활용 과정부터 창작·AI 기반 콘텐츠 제작 과정까지 단계별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제1기 미디어교육은 태블릿 드로잉 및 이모티콘 제작, 스마트폰·컴퓨터 활용 입문, AI를 활용한 블로그·오피디오 콘텐츠 제작, 단편영화 제작 과정 등 총 6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과정별로 대상 연령과 나이도를 구분해 디지털 기기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참여자부터 창작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까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

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일상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습 중심 수업을 강조했다.

스마트폰·컴퓨터 활용 과정에서는 촬영, 파일 정리, 문서 작성, 인터넷·메신저 활용 등 생활 밀착형 디지털 기능을 다루며 창작 과정에서는 AI 도구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실습을 통해 참여자가 직접 기획·제작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단편영화 제작 과정은 기획부터 촬영·편집까지 전 과정을 단계적으로 학습하며 일부 과정은 외부 촬영을 포함해 실제 제작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운영된다.

완성된 결과물은 공모전 출품이나 외부 채널 제출 등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 접수는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과정별 교육 일정, 모집 인원, 수강료 등 자세한 사항은 모집 안내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습 중심 미디어교육을 통해 주민이 미디어를 직접 활용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과정별 교육 일정, 모집 인원, 수강료 등 자세한 사항은 모집 안내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습 중심 미디어교육을 통해 주민이 미디어를 직접 활용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 김제·부안·고창

### 부안군, 노후슬레이트 철거 사업 추진

83동 철거·오늘부터 신청

부안군은 노후슬레이트의 석면 비산으로 인한 군민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나아가 농촌의 주 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25년까지 13년간

총 사업비 88억원을 들여 슬레이트 2,796동을 철거했으며 올해 사

업비 13억8천만원을 확보, 265동

(지붕개량 83동)을 대상으로 슬레

이트를 철거할 계획이다.

슬레이트 건축물이 대상이며, 주

택은 최대 700만원, 비주택은 540

만원 주택 슬레이트를 철거한 부

분의 지붕 개량은 일반가구는 5백

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1,0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조과금액 발생 시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해당 사업은 위탁업체가 직접 철거하는 절차로 진행되며 개인이 철거한 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절차가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늘부터 예산 소진시까지이며, 건축물 소유자가 슬레이트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정폐기물인 석면으로 인한 군민들의 건강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 김제시, 농업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6개부서·180개 사업 지원

김제시는 달라지는 농업정책을 알려주고 올바른 영농계획 활용을 위한 2026년 농업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14일 농업인교육문화지원센터에서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김제시농어업회의소(회장 서장배)가 농업지원사업 정보제공과 여러 가지 달라지는 농업정책을 알려주고 올바른 영농계획과 활용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실시했다.

설명회는 2026년 달라지는 변경사업과 신규사업 설명을 비롯해 김제시 농업관련 부서인 농업정책분야, 스마트유통분야, 농촌활성화분야, 축산진흥분야, 농촌지원분야, 기술보급분야 6개부서의 180개 사업에 대해 설명을 가졌다.

(사)김제시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 발전을 위한 각계의 의견을 종합하고 조정하는 농정협의 기구로 지난 2023년에 창립해 농업정책 간담회와 자체 활동을 추진, 농정 참여를 통해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는 단체다.

매년 농업관련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책자 제작과 함께 설명회를 가지는 등 적극적으로 농업인들의 권의 향상을 대변하는데 앞장서 오고 있다.

이승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환경 여건에 대응해 당면 문제해결을 위한 농업기술 보급과 신소득작목 발굴, 농업 재해로부터 안전한 농촌지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 김제시 ‘신풍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인가

국토교통부 설립인가 확정

김제시는 지난 13일 신풍지구 도시 재생사업을 통해 육성한 ‘신풍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하 조합)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인가로 도시재생사업 종료 이후에도 거점시설 등 생활 기반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주민 중심의 재화·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갖추게 됐다.

조합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기초 생활 인프라를 유지·관리하고,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 주도 조직이다.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며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미을 운영의 지속가능성과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조합은 지난해 9월 창립총회를 개최한 뒤 설립 절차를 추진해 왔으며, 지난 8일 국토교통부 설립인가가 확정되었다.

/김제=온봉기 기자

### 고창군, 통합돌봄 지원사업 안착을 위한 실무 교육

고창군이 지난 9일 사회복지과 및 14개 읍·면 맞춤형복지팀을 대상으로 ‘통합돌봄 지원사업’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초고령 사회에 대응해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고창군의 돌봄 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통합돌봄 사업의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구체적인 추진 절차 및 방향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특히 보건·의료, 요양·주거 등 분야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공무원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실무자들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통합돌봄은 지역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라며 “현장 실무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모든 군민이 행복하고 품격 있는 삶을 누리는 고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 고창문화관광재단, 방장산 자연환경조사·가치 확산 사업 성료

고창문화관광재단(상임이사 조창한)이 ‘방장산 자연환경조사 및 가치 확산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사업은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회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방장산의 생태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친환경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추진됐다.

국립성금체원, 전북생명의숲, 관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식물 600종 △포유류 15종 △조류 143종 △곤충 109종의 동식물 자원이 확인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무산쇠족제비 △담비 △습 등이 잇따라 관찰되며 방장산의 우수한 생태적 건강성을 입증했다.

또한, 고창 지역뿐만 아니라 접경 지역인 장성 및 정읍 지역의 생태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면서 방장산 전체를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보전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조창한 고창문화관광재단 상임이사는 “앞으로 방장산의 생태 가치를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은 물론, 문수산과 인천강 등 관내 주요 생태 거점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p

## 완주 미니복합타운 공동주택 본격 시동

테크노밸리 2단계 아파트 재개  
1-BL 구역 시공사 선정 눈앞  
국가산단 협약으로 '속도'

완주 테크노밸리 2단계 미니복합타운 내 공동주택 건설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에 조성된 미니복합타운은 면적 39만 4,819㎡ 규모로, 수용 인구는 약 8,300명이다. 이곳에는 공동주택 2,987세대와 단독주택 333세대를 비롯해 근린공원·소공원, 녹지, 어린이집과 초·중학교 등 생활·교육 인프라가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그동안 미니복합타운은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공동주택 건설이 지연되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최근 수소 국가산단 협약으로 협약을 통해 공동주택 건설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업은 국립과학기술원(NRI)과 협약을 맺어 공동으로 공동주택 건설에 착수할 예정이다.



완주 테크노밸리 2단계 미니복합타운 내 공동주택 건설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사진은 완주군 제공.

공동주택은 민간 분양 방식으로 4개 단지가 공급될 계획이며, 단지별로는 1-BL 777세대 △2-BL 667세대 △3-BL 739세대 △4-BL 804세대다. 지난 수소 국가산단 협약으로 공동주택 건설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업은 국립과학기술원(NRI)과 협약을 맺어 공동으로 공동주택 건설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3·4블록은 북측 학교 인접 구간에 중층(10층 이하) 배치를 적용해 교육환경 보호와 주거 편의성을 함께 고려했다.

1-BL의 경우 2022년 5월 사업계획승인을 완료했으며 현재 사업주는 공동주택 공사 진행을 위해 시공사 선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현재 푸르지오와 더샵 등 일부 대형 브랜드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완주=김명곤기자

## 남원시 모노레일 손배소 29일 상고심 판결 '촉각'

"408억 대신 갚아라" 모노레일 분쟁  
심리불속행 기한 넘겨 선고 접혀

남원시와 남원시 민간개발사업 대주단과의 모노레일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29일 나온다.

지난 13일 남원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시행사가 벌린 돈 408억을 남원시가 대신 변제하라는 내용으로 대주단이 제기한 남원시 민간개발사업(모노레일)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이달 29일로 정했다.

이번 상고심 선고기일 지정과 관련, 일각에서는 당초 22일이었던 심리불속행 기한을 경과해 대법원 선

고기일이 잡힌 것을 두고 원심판결과 달리 시가 유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본 판결이 지자체 재정 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남원시는 지난 2020년 시행사가 시에 불리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공사비를 과다하게 산정해, 그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시에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에 모노레일 시설물 준공을 앞두고 시행사에 실시협약 변경을 요청했으나, 시행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상황에서 시행사는 2022년 8월

부터 16개월간 모노레일을 운행한 결과, 수익성이 당초 예측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자 사업을 중단 시에 일방적으로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실시협약 제19조를 근거로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본격화됐다.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의회 등의 유효하고, 해당 사업의 구조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남원시는 2심에서 피고 항소가 기각된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 순창군, 유소년 소프트테니스로 스포츠마케팅 새해 포문

14~19일 공설운동장 실내구장서  
순창군·전북도 후원 전국대회

스포츠 산업도시 순창군이 2026년 새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마케팅의 첫 포문을 힘차게 열었다.

이달 14일부터 오는 19일까지 6일간, 순창공설운동장 실내 다목적구장에서 제67회 전국 유소년 소프트테니스 대회가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한국여자소프트테니스 연맹(회장 배연숙)이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소프트테니스협회(회장 박경만)가 주관하며, 순창군과 전북특별자치도가 후원하는 전국 단위의 대표적인 유소년 소프트테니스 대회다.

대회는 2023년 순창군과 한국여자소프트테니스연맹이 체결한 상호 스포츠 대회 유치 협약에 따라 영구적으로 순창군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유소년 소프트테니스 종목 육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



이달 14일부터 오는 19일까지 6일간, 순창공설운동장 실내 다목적구장에서 제67회 전국 유소년 소프트테니스 대회가 개최된다. <사진=순창군>

성할 수 있는 모범 사례로 꼽힌다. 특히 순창군은 실내 체육 인프라 확충에 적극 투자해 왔으며, 이번 대회 역시 겨울철임에도 불구하고 페스티벌과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현재 순창군은 소프트테니스 종목 중심으로 한 스포츠 마케팅 전략을 꾸준히 펼치고 있으며, 매년 10여 개 전국 규모 전문 체육대회와 20여 개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고 있다. 그 결과, 소프트테니스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대표 '효자 종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 김관영 전북도지사 남원 방문 '핵심 현안 지원 의지'

도민과의 대화 500여명 참석  
김병종미술관 리모델링 지원 약속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4일 남원시를 방문해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시민들과 직접 소통했다.

이번 방문은 새해 도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남원시가 추진 중인 핵심 현안 사업에 대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남원시청 도착 후 시의회를 방문한 김 지사는 시의장단 및 도의원들과 함께 담을 나누며 지역 주요 현안과 협력 방

안을 논의했다. 이어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는 약 5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도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시민 질의에 직접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남원시가 건의한 △남원시립 김병종미술관 리모델링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국립현대미술관 전북관 유치 등 핵심 현안에 대해 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시의장단 및 도의원들과 함께 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 의지를 밝혔다. 특히 김병종미술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도비 10억 원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동부노인복지관을 찾아 시설 운

영 현황을 확인하고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며 노인복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남원공설시장에서는 전통시장 장보기를 통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의지를 나타냈다. 이날 구매한 물품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남원은 전통문화와 미래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 완주군 북부권 '광역 농기계수리센터' 들어선다

전북도 지원사업 최종 선정  
서봉리 일원 부지 10억 투입

완주군이 전북도 '광역농기계수리센터'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농기계 수리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 수리체계를 구축해 농기계 고장 시 신속한 대응과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산면을 비롯한 북부권 6개 면을 아우르는 광역 거점 수리센터를 조성하게 된다.

광역농기계수리센터는 고산면 서봉리 일원에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부지 3,635㎡, 건축면적 724.61㎡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수리센터에는 중·소형 농기계

수리를 위한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고, 내방수리와 출장수리를 병행 운영해 농업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완주군은 농기계 수요에 비해 수리 인프라가 부족해 농번기 집중 수리로 인한 과부하와 민간 수리업체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군은 이번 광역농기계수리센터 구축을 통해 문제를 해소하고, 예방 정비 시스템을 도입해 고장 발생을 사전에 줄여 나갈 방침이다.

수리센터 운영은 고산농협을 주관농협으로 인근 협약농협과 공동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농기계 운반 차량을 활용한 운반 서비스도 제공함으로써 고령 농업인의 수리 부담을 크게 줄일 예정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 청년도전 참여자 접수  
45세까지 최대 250만원 지원

완주군이 구직 단념 청년들의 사회 진출과 취업 역량 강화를 돋기 위한 '2026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청년도전 사업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업이나 교육, 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청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구직 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모집 대상은 18세부터 39세까지의 미취업 청년이며, 완주군민의 경우 45세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군은 지역 청년들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삼례읍(안동지역, 청년몰), 봉동읍(청년종합지원센터), 이서면(이서나루) 등 관내 주요 거점별로 프로그램을 분산 운영할 계획이다.

총 104명을 모집하며, 참여 기간에 따라 세 가지 과정으로 나뉜다. 단기 과정(5주) : 24명 모집 / 수당 50만 원 지급 △중기 과정(15주) : 52명 모집 / 수당 150만 원 지급 △장기 과정(25주) : 28명 모집 / 수당 250만 원 지급

참여자들에게는 건강, 상담, 금융, 법률 등 '생활력 강화 프로그램'과 실질적인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올해는 멘토링과 또래 서포터즈 활동을 보완한다.

프로그램 이후 취업에 성공할 경우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지속적인 취업 연계 활동을 지원한다.

참여 희망자는 완주군 누리집 또는 공식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구글 신청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 순창군 태이친환경농조합법인 제주 학교급식 쌀 공급업체 선정

순창군 태이친환경농조합법인이 제주 특별자치도 '2026~2027년 학교급식 친환경 쌀 공급업체'로 최종 선정되는 폐거를 이뤘다.

이번 선정은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추천한 우수업체들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이룬 성과다. 태이친환경은 △서류심사 △현지 실사 △영양교사가 참여한 밥맛 품평회 등 3단계에 걸친 엄격한 평가 절차를 모두 통과하며 최종 3개 공급업체 중 하나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태이친환경은 2026년 3월부터 2028년 2월까지 2년간, 제주도 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에 백미, 현미 등 친환경 쌀 4종 약 500톤을 공급하게 된다.

태이친환경은 2016년부터 10년간 순창군 친환경 쌀 약 1만 톤을 제주에 공급해 온 베테랑업체다. 오랜 기간 축적된 품질 신뢰도와 함께, 순창군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이번 성과의 밑바탕이 됐다.

특히 순창군은 전북도와의 협력을 통해 추천업체를 제출하고, 제주산 농산물을 교차 구매하는 등 도농 상생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왔다. /순창=박지현 기자

## 완주군, 윤주 생활문화거점·용진 봉서골 소공원 본격

군수 운주면·용진읍 연초방문  
생활문화 역량·관광인프라 강화

완주군 운주면 생활문화거점이 확대되고, 용진읍 봉서골 소공원 조성이 본격화된다.

완주군은 14일 운주면과 용진읍을 차례로 방문, 2026년 군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지역별 주요 현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운주면에서는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 2단계'가 주요 현안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업은 2023년 조성된 생활문화공동체센터를 중심으로 동아리 운영과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지역역량 강화 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해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주민들은 생활문화공동체센터 공

간 확장, 야외공연장 조성, 운주터미널(버스정류장) 이용환경 개선 등을 건의했으며, 군은 사업 지침상 제약이 있는 시안에 대해서는 한계를 설정하는 한편, 버스정류장 시설 개선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 가능성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진읍에서는 '봉서골 소공원 조성 사업'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 해당 사업은 과거 군부대 훈련장 부지

를 활용해 주민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약 3천 평 부지에 총 16억 원을 투입해 올해 상반기 착공,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군은 소공원 내 공중화장실 설치와 주차공간 확보를 사업에 반영하고, 용진저수지 연계 개발은 관광종합개발 계획에 포함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 남원시, 원광대와 식용 곤충 레시피 공모전 개최

RISE 일환·인식 대전환 모색

남원시와 원광대학교 RISE 사업단은 식용 곤충에 대한 인식 전환과 관심 제고를 위해 식용 곤충 활용 레시피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식용 곤충 요리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수상자는 대상 1팀(150만 원), 최우수상 1팀(100만 원), 우수상 1팀(70만 원), 장려상 1팀(50만 원)을 선정한다.

접수 기간은 이달 12일부터 오는 28일(수)까지이며, 참가 신청 방법은 원광대 RISE 사업단 홈페이지(rise.wku.ac.kr)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사는 창의성 및 독창성, 실현 가능성, 서류 충실도, 제품화 및 상용화 전략, 기술적 완성도, 지역사회 기여



도 등을



임실군, 소형 건설기계 면허 교육생 모집...교육비 50% 지원

임실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소영)가 농작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특수 농업기계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형 건설기계(3톤 미만 굴착기·지게차·스키로더) 면허취득 교육생을 모집한다.

해당 교육은 임실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총50명을 선별해 교육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문 교육기관에서 이론교육 6시간과 실기교육 6시간 등 총 12시간 과정으로 운영된다.

신청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관련 서류(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운전면허증 사본·굴착기·스키로더 2종, 지게차1종)를 구비 후, 읍·면 농업인상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기계관리팀(임실군 신평면 대리로 154-5)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천소영 소장은 “소형 건설기계 면허취득 교육 지원을 통해 농기계 및 농작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업 기계화 촉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안전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마을로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육 큰 호응

진안군은 지난 12일부터 진안군 11개 읍·면 90여개 마을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육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사업은 치매 예방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이동의 어려움 등으로 교육 참여가 쉽지 않았던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진안군치매안심센터가 직접 마을을 방문해 맞춤형 치매예방교육을 제공하는 특징이다.

교육은 스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 △ 일상생활 속 치매예방 수칙 △두뇌 자극을 위한 인지활동 △신체활동을 결합한 예방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으며, 어르신 눈높이에 맞춘 설명과 체험 중심의 교육으로 참여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치매는 조기 예방과 지속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으로, 구체적인 인지 자극과 신체활동,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할 경우 발병 위험을 낮추고 진행을 늦추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멀리 나가지 않아도 마을에 직접 와서 알려주니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다”며 “앞으로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 헌혈 캠페인 통해 생명 나눔 실천

장수군은 13일 군청 광장에서 실시한 헌혈 캠페인에 총 42명이 참여해 따뜻한 생명 나눔을 실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헌혈 캠페인은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과 연계해 이동헌혈차량을 활용해 진행됐으며 장수군은 연 5회 헌혈 캠페인을 실시하며 안정적인 혈액 확보와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겨울철 헌혈 참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혈액 수급 상황을 고려해 마련됐으며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청 직원과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캠페인의 취지를 더욱 빛냈다.

/장수=최진수 기자

# 장수군, 귀농인 주거·창업 자금 지원

## ‘귀농농업창업주택구입지원’ 참여자 모집 내달 6일까지 접수

농업창업 자금은 △농지 구입 △시설 하우스 설치 △농기계 구입 △축사 및 저장시설 조성 등 영농 기반 구축에 활용 가능하며 주택구입 자금은 주택 구입·신축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

의 귀농·귀촌을 희망하거나 초기 정착 단계에 있는 자로 영농관련 교육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또한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장수군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6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 농촌지역에 거주 중이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비농업인, 올해 전입 예정인 귀농희망자가 해당된다.

지원은 농협 자금을 활용한 융자에 대해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택구입은 최대 7,500만 원이며 5년 거치 후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다만 실제 대출 금액은 농협·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금액보다 적거나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신청은 장수군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은 서류 심사와 선정심사위원회 면접을 거쳐 이뤄질 예정이다.

기타 사업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군청 농산업정책과 귀농귀촌팀(063-

350-2398)에 문의하면 된다. 사업에 관

한 자세한 내용은 장수군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 임실엔치즈클러스터, 역대급 매출 달성

## 2025년 89억원 매출 진기록 전년 대비 19% 성장

대한민국 치즈의 원조인 임실N치즈의 생산과 유통과 판매 전 과정을 컨트롤하는 (사)임실엔치즈클러스터 사업단(단장 최나진)이 지난 해 역대급 매출을 기록하며, 통합물류의 혁신모델로 우뚝 섰다.

군에 따르면 (사)임실엔치즈클러스터 사업단은 2025년 총 매출 89억원을 올리며, 전년 대비 19%의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이뤄냈다.

최근 6년간 매출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35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이후 2021년 44억원, 2022년 54억원, 2023년 63억원, 2024년 75억원으로 꾸준히 성

장한 가운데 지난 해에는 89억원의 역대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하는 등 약 2.5배에 달하는 매출신장을 이뤘다.

이번 성과는 임실N치즈브랜드 가치 상승과 함께 임실엔치즈클러스터 사업단이 구축해 온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통합물류 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 덕분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사업단은 단순 물류 수행을 넘어,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을 연계하는 임실치즈산업의 핵심 유통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강화해왔다.

임실지역 유기농업체들의 유제품 유통을 일원화해 배송 효율 극대화, 재고 관리 고도화, 물류비 절감을 동시에 실현했다.

이를 통해 생산자는 제조에 집중하고

소비자는 안정적인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했다. 또한 사업단은 소비자 신뢰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재)임실치즈엔시 품연구소와의 협업을 통해 위생·품질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등 유통단계에서도 품질 관리 책임을 분명히 하며 임실N치즈의 신선도와 품질 경쟁력 유지를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임실N치즈산업은 올해에도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숙성치즈 고도화와 저지종 육성을 통한 프리미엄 유제품 개발 등 고부가가치 전략을 본격 추진, 임실N치즈클러스터 사업단을 중심으로 한 유통 경쟁력 강화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소비자는 안정적인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했다.

또한 사업단은 소비자 신뢰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재)임실치즈엔시

품연구소와의 협업을 통해 위생·품질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등 유통단

계에서도 품질 관리 책임을 분명히 하며 임실N치즈의 신선도와 품질 경쟁력

유지를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임실N치즈산업은 올해에도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숙성치즈 고도화

와 저지종 육성을 통한 프리미엄 유제

품 개발 등 고부가가치 전략을 본격 추

진, 임실N치즈클러스터 사업단을 중심

으로 한 유통 경쟁력 강화에 더욱 속도

를 낼 계획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 진안군,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참여자 모집

### 집에서도 쉽게 하는 건강관리

마시기 등 건강 임무를 부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앱을 통한 과제 실천을 유도하고 목표 달성을 시 포인트 및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가 건강 관리를 독려할 계획이다.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스마트 폰 건강관리 앱을 활용해 혈압·혈당 관리, 신체활동 실천 등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어르신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군은 참여자에 대해 신장, 체중, 혈압 등 사전 건강평가를 실시하고, 건강군, 전 혀약군, 혀약군으로 분류해 결과에 따라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 관리를 선정한다.

이후에는 ‘오늘건강’ 앱과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매일 운동하기, 혈압 및 혈당 측정하기, 제때 약 먹기, 물 마시기 등 건강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진안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건강관리가 필요한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은 진안군보건소 방문보

건팀으로 전화 접수하거나 보건소

어르신 헬스케어실로 방문 신청하

면 된다.

/진안=전길빈 기자

## 임실군, 소득기준 관계없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 환자가족 부담 덜고 조기 치료 지원

임실군은 지난해부터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는 고령화 속도가 빠른 지역 여건을 고려해 치매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비용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미루거나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임실군에 주소를 둔 치매 환자는 진료비와 약제비 등 치료

비를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환자의 조기치료를 유도하여 증상 악화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임실군은 앞으로도 치매 환자가 안정적으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지역 사회 중심의 치매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임실군 치매안심센터(063-640-3372)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임실=한병열 기자

# 김관영 도지사, 진안군 찾아 진안 대도약 비전 공유

## 14일 도민과의 대화

### “1.7조원 진안양수발전소 유치 적극 지원하겠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4일 진안군을 찾아 군민들과 소통하며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진안군의 현안을 찾아 전춘성 군수, 동창옥 군의장, 전용태 도의원, 군의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진안이 당면한 주요 현안과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군청 강당으로 자리옮겨 ‘도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군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도전경성의 처음과 끝, 도민과 함께 여민유지’를 주제로 전북자치도의 도전과 진안군과의 특별한 상생·협력사업, 2026년 도정운 영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자치도 전주 하계올림픽 국내후보도시 선정, 피지컬 AI 실증단지 유치, 17조원 투자유치, 국가예산 10조 원 시대 개막 등 도민과 함께 노력해 여러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경성의 자세와 오직 도민만을 생각하는

의지 △진안월랑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관심과 지원 △진안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도지역 변경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진안 양수발전소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계통 안정과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핵심 국가 에너지 인프라이다”며 “도의 행정·정책 역량을 종동원해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의지 △진안월랑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관심과 지원 △진안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도지역 변경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진안 양수발전소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계통 안정과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핵심 국가 에너지 인프라이다”며 “도의 행정·정책 역량을 종동원해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 장수군,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 추진

장수군은 봄철 산불 예방과 불법 소각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통해 자율적인 산불 예방 활동에 동참하면 된다. 장수군은 7개 읍·면을 대상으로 마을 단위 서약 참여를 독려하고 이장단 협의회 및 각종 회의를 통해 캠페인 취지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한주석 의성한방병원장,  
순창군에 500만원 기탁

의성한방병원을 운영하는 한주석 병원장이 최근 순창군을 방문해 50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했다.

순창읍 백산리 출신인 한주석 병원장은 지난 2005년부터 고향의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을 위해 꾸준히 기부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순창군에 3년 연속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전달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한주석 병원장은 “힘든 겨울을 보내고 실고향 이웃들께 작게나마 희망과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고향과 이웃을 위한 꾸준한 관심과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나눔으로 큰 힘과 희망을 더해주시는 한주석 병원장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보내주신 기부금은 순창군 발전과 군민들을 위해 뜻깊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진안 진안읍 이장협의회 일동,  
장학금 100만원 기부

진안군 진안읍 이장협의회는 지난 13일 진안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하며 지역인재 양성에 힘을 보탰다.

신규설 진안읍 이장협의회장은 “매년 회원들과 뜻을 모아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이장님들에게도 큰 보람”이라며, “선배 세대의 응원이 학생들에게 잘 전달되어 진안을 빛낼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기부 소감을 밝혔다.

이에 전준성 진안사랑장학재단 이사장은 “매년 잊지 않고 지역 인재들을 위해 따뜻한 정성을 보내주시는 진안읍 이장협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고생해 주시는 이장님들이 심시일반 모아주신 장학금인 만큼 우리 학생들이 진안의 미래를 밝힐 훌륭한 재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 전주소년원 ‘회복적 사법’ 체계 혁신 주도

### 관계 회복·공감·책임 중심 인권 생활지도 모델 전환

분리·정계·처벌 공간이었던 소년원이 대화·이해·회복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전주소년원이 폭행·괴롭힘 등 갈등 문제를 더 이상 징계로 만 처리하지 않고, 관계 회복과 성찰을 중심으로 한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체계로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전주소년원의 ‘회복적 사법’ 혁

신은 소년원 내 갈등을 단순 징계로 종결하던 응보적 모델에서, 관계 회복·공감·책임을 중심으로 한 친인권적 생활지도 모델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변화다.

전주소년원은 소년들의 행동을 장기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현장의 문제의식에서 이번 혁신을 시작했다.

전주소년원의 회복적 사법 평시리테이터 양성과정은 총 8회기 30시간 이상으로 운영된다.

회복적 사법 가치와 갈등 분석,

공감적 경청, 개방형 질문기법 등 이론 교육을 시작으로, 실제 상황 기반 퀴즈 플레이와 모의 서클을 통해 언어·표정·질문 기술을 훈련한다.

회복적 서클에 참가한 소년들은 “왜 화가 났는지”, “사실은 무엇을 원했는지”를 이해하면서 공격적 대응이 줄고, 표현 능력과 자기 조절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춘덕 교무과장은 “소년원은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곳이 아니

라, 실수한 소년들이 다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마지막 학교’라며, “회복적 사법은 소년들이 상처를 직면하고, 관계를 회복하며, 당당히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가장 따뜻하면서도 강력한 교육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소년원은 향후 ‘펴실리테이터 과정 확대’, ‘전 교직원 대상 회복적 교육 정례화’, ‘회복적 서클의 생활지도 전면 적용’ 등을 통해 정계·통제 중심 문화를 ‘존중·공감·관계 회복’의 문화로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완주 봉동읍 농업경영인회,  
희망나눔가게에 물품 기탁

완주군 봉동읍 농업경영인회(회장 이겸용) 회원들이 봉동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국인숙, 윤당호)가 운영하는 희망나눔가게에 1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하며 이웃의 온정을 전했다.

봉동읍 농업경영회는 농촌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노령화로 농업 후계인력이 점차 축소됨에 따라 농촌을 이끌어갈 유망 예비 농업인 및 우수한 농업경영인을 발굴해 미래 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유지를 위해 설립된 단체다.

이겸용 회장은 “회원들이 뜻을 모아 취약계 층을 도울 수 있어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면서 농업인뿐만 아니라 취약계 층 주민들에게 지역의 온정을 전하는 나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 정읍시 공수의사회, 장학금 300만원 기탁

### 지역 인재 육성에 힘 보태

정읍시 공수의사회(정읍분회장 김진만)가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 육성에 힘을 보태기 위해 14일 정읍시민장학재단(이사장 이학수)에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식은 정읍시청 2층 단풍 회의실에서 열린 ‘공수의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진행됐다. 이날 전달된 장학금은 지역 교육 환경을 개선

하고 학생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공수의사회의 뜻이 모여 마련됐다.

김진만 분회장은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야말로 공수의사회가 막히기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 유의식 완주군 의장, ‘전북지방의정봉사대상’ 수상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이 지난 13일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 학술교류연수에서 시상식이 진행됐으며, 유 의장은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제선 의원인 유의식 의장은 제9대 완주군의회 후반기 의장직을 수행하며, 다년간 쌓아온 풍부한 의정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등 ‘민의의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주 더 메이 호텔에서 열린 ‘전

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 학술교류연수에서 시상식이 진행됐으며, 유 의장은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제선 의원인 유의식 의장은 제9대 완주군의회 후반기 의장직을 수행하며, 다년간 쌓아온 풍부한 의정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등 ‘민의의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주 더 메이 호텔에서 열린 ‘전

진안군의회 동창옥 의장이 지난 13일,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한 기초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동창옥 의장은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 받았다.

동창옥 의장은 “이번 상은 저 개인에게 주어진 영예

하는 의회,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목표로 균형 발전과 군민 행복 실현에 크게 이바지해왔다.

동창옥 진안군의회 의장은 “이번 상은 저 개인에게 주어진 영예가 아닌, 군민과 동료 의원 모두가 되는 상으로, 동창옥 의장은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 받았다.

동창옥 의장은 ‘군민과 소통하는

정열인 의회, 현장 중심의 열심히 일

/진안=전길빈 기자



남원 인월면 ‘영월사’,  
희망2026 나눔캠페인 참여

남원시 인월면에 위치한 영월사에서는 지난 1월 10일에 난방비 300만원과 생필품 10종(환가액 200만원)을 관내 생활이 어려운 10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전달했다.

영월사는 부처님 말씀을 실천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어려운 이웃들과 마음을 나누고 있으며, 올해는 특히 저소득 아동이 있는 가정과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께 난방비와 물품을 기부하여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담아 나눔의 의미를 더해 오고 있다.

영월사 주지스님은 “처음 나눔을 시작할 때 2가정으로 출발해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알 수 없으나 점점 더해지는 불자들의 정성과 기도로 마련된 성금과 물품을 지역 내 생활이 어려운 취약 계층 10가정으로 확대해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며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 더없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 한파 대비 건강수칙

### 겨울철에는 한파특보 등 기상정보를 매일 청취하세요!

#### 생활습관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섭취와  
고른 영양분을 가진  
식사를 합니다.  
※ 무리한 운동은 삼갑시다.

#### 외출 전

체감온도를 확인합니다.  
※ 날씨가 추울 때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 실내환경

실내 적정온도  
(18~20°C)를 유지하고  
건조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 어르신과 어린이는 체온이  
유지하기 위한 반응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외출 시

따뜻한 옷을 입습니다.  
※ 장갑, 옥도리 모자,  
마스크를 착용하고  
과도한 음주를 피합니다.

〈一事一言〉



## 전북특별자치 2년 - 선택의 권한이 만든 변화

김관준  
주필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 2주년을 맞아 내놓은 자체 평가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제도 변화'에 머물던 특별자치가 이제는 '삶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년은 전북이 특별자치도의 이름에 걸맞은 실험을 시작한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그 성과가 도민의 일상 속에서 얼마나 깊이 체감되는지가 관건이다.

출범 2주년을 맞아 열린 도민 보고회에서 제시된 변화의 목록은 단순한 정책 나열이 아니라, 자치권 강화가 지역의 문제 해결 방식 자체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농생명산업 분야다. 남원·진안·고창·의산·장수·순창 등 6개 시군이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되면서, 농지전용과 행정 절차에서 오랜 기간 발목을 잡아 온 규제가 완화됐다.

도지사가 직접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 행정 속도는 빨라졌고,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농지전용 권한 확대는 지역 실정에 맞는 산업 전환의 길을 열었다. 이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농업을 생계형 산업으로 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려는 전북의 방향성을 상징한다.

축산과 방역 분야에서도 자치의 힘은 분명히 드러난다. 전국 최초로 도입된 '전북형 공수의 제도'는 민간수의사를 활용해 도축 검사와 방역 공백을 줄이며 현장의 신뢰를 높였다. 동물용의약 품 시험·검사 지원 역시 관련 산업의 성장 기반을 다지며, 전북을 축산 바이오 산업의 거점으로 키

울 가능성은 보여준다. 이는 도민의 먹거리 안전과 직결된 변화라는 점에서 체감도가 높다.

문화·관광 분야는 특별자치가 지역의 매력을 어떻게 확장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도지사 권한으로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고 K-문화콘텐츠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한편, 아간관광 명소와 아간관광진흥도시를 통해 체류형 관광의 기반을 넓혔다.

변산해수욕장 방문객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는 정책이 현장 경제로 연결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조성 역시 군산과 부안을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해양문화의 중심지로 재정의하고 있다.

금융과 산업 영역에서도 변화는 진행 중이다. 전국 최초의 펀드크육성지구 지정과 한국펀드

크리원센터 전북분원 유치는 청

년 창업과 금융 인재 양성의 토대를 마련했다. 실용금융교육을 통해 금융이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도민 모두의 생활 기술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전북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장기 전략의 일부다.

건강·복지 분야에서의 성과는

더욱 직접적이다. C형간염 조기

발견과 치료 지원,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화재안전취약계층 지원 확대는 '보이지 않는 안전망'

이 도민의 삶을 어떻게 지탱하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노인·한부모·다문화가정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 것은 포용적 자치의 방향을 분명히 한다.

아울러 전북자치도의 강점은 단일 산업이 아니라 농생명·문화·관광·에너지·금융·환경이 서로

완화, 고용특구 운영 역시 지역 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변화다. 시 험여업 권한 이양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낚시어선 규제 완화로 이용객을 늘린 사례는 중앙 일괄 규제가 아닌 지역 맞춤형 자치가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잘 보여준다. 새마금 고용특구를 통한 취업 연계와 고용촉진 지원금 역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결국 특별자치도의 성공 여부는 숫자가 아니라 시간 속에서 평가받는다. 도민이 "확실히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는 변화가 누적될 때, 전북은 특별자치도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지난 2년이 가능성을 보여준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시간은 그 가능성을 일상의 신뢰로 바꾸는 과정이 될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다음 2년이 더욱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만 특별자치의 성과를 일회성 보고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성찰과 점검도 병행돼야 한다. 특

례 확대가 곧바로 체감으로 이어지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는 원인

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제도의 보

완화와 운영 방식의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일부 특례가 행정과 정책 담당자 중심의 성과로 인식되지 않도록, 도민 참여와 소통 구조를 제

도적으로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설계 단계부터 반영될 때 특별자치는

비로소 '도민의 자치'로 완성된다.

아울러 전북자치도의 강점은

단일 산업이 아니라 농생명·문화

·관광·에너지·금융·환경이 서로

연결되는 융합 구조에 있다. 농생명산업은 관광과 결합해 체험·치유 산업으로 확장될 수 있고, 환경·신림 특례는 탄소중립과 기후 대응이라는 국가적 과제와 맞물려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연계 전략이 강화될수록 전북의 특례는 개별 정책을 넘어 하나의 지역 브랜드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제 전북특별자치도가 고민해야 할 과제는 '다음 단계'다. 앞으로는 돌봄·주거·교통·교육 등 생활 밀착형 분야에서의 추가 특례 발굴이 필요하다. 예컨대 농촌형 공공돌봄·청년·고령자 맞춤형 주거 특례, 산간·도서 지역 교통 규제 완화 등을 도민 체감도를 한층 끌어올릴 수 있다. 또한 시군별 특례 성과가 지역 간 격차로 어이지 않도록 광역 차원의 조정과 연계 전략도 중요하다. 특례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강점과 약점은 그 원인을 잘 분석해 대처해야 한다.

특별자치도는 제도의 이름이 아니라 도민의 권리이다. 전북이 지난 2년간 보여준 변화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 지역은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했다. 앞으로의 과제는 분명하다. 더 과감한 특례, 더 촘촘한 생활 정책으로 자치의 성과를 도민의 일상 속에 깊이 새기는 것이다. 특별자치 3년 차를 향한 전북의 다음 발걸음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 사설

### 중앙 정치권과 공조한 전북, 예산으로 증명한다

전북 정치 지형에 의미 있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더 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등 중앙당 지도부에 대거 진입하면서, 그동안 전북이 겪어온 구조적 불리함을 일부나마 상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의 무게중심이 중앙에 있는 현실에서, 전북 출신 인사들의 핵심 의사결정 구조 진입은 단순한 인사 성과를 넘어 지역 발전의 실질적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이 같은 정치적 여건 변화 속에서 전북자치도가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해 2027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3,954 억 원 규모, 308건의 신규사업을 발굴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저출생·고령화로 의무지출이 급증하고, 정부 총지출 증가율마저 둔화되는 상황에서 신규 사업을 국가예산에 반영시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중앙부처 정책 방향에 맞춘 선제적 사업 기획과 정치권과의 전략적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특히 이번에 발굴된 사업들은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차전지, 무인이동체, 탄소산업 등 첨단산업 기반 구축은 지역 산업 구조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과제다. 농생명 분야에서도 푸드테크와 메디컬푸드, 동물헬스케어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어, 전통 농업의 한계를 넘어서는 시도가 염두에 있다. 여기에 새마금과 SOC, 문화·관광, 안전·복지 분야까지 고르게 포진된 사업 구상은 전북의 균형 있는 도약을 염두에 둔 결과라 할 수 있다.

지금 전북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 중앙 정치와 지방 행정이 같은 목표를 향해 호흡을 맞춘다면, 국가예산 10조 원 시대를 넘어 실질적인 지역 체질 개선도 가능할 것이다. 발굴된 사업들이 숫자에 그치지 않고 도민의 삶을 바꾸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의 더욱 긴밀하고 책임 있는 공조를 기대한다.



무주 한풍루  
(보물 제2129호)

-분류 - 유적건조물, 누정

-지정일 - 2021년 6월 24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무주군 한풍루로

326-5 (무주읍, 한풍루)

2011년 10월01일 창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일간) 우)54990 www.jeonbuktimes.co.kr			
발행·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강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충청지사 010-8678-4271	제주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구지사 010-8640-6855	의성지국 010-9560-3075	전안지국 010-2433-1721	원주지국 010-3872-0308
제주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순창지국 010-5312-7283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부지는 신문 유통 강경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오늘의 시

### 권력 / 괴재 구

옛날에는  
호박꽃도 아름다운 꽃이라고  
말했던 친구가  
페랭이꽃이나 민들레꽃도  
진짜 아름다운 꽃이라고  
말했던 친구가

갑자기 장미나 백합을 들먹이며  
나머지 꽃들은 뽑아  
없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위커와 방패에 기름을 먹이며  
자신이 끌려갔던 달장차와  
오랫동안 증오했던

최루탄발사기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아 참 단맛이구나  
아 참 꿀맛이구나  
적어도 5년은 그렇게  
입맛을 졉찝일 것이었습니다.

시인 악력 : 1954년 광주광역시 출생. 전남대 국문학과와 숭실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1981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서 '사평역에서'가 당선돼 등

단했다. 시집으로 '서울 세노야', '참 맑은 물살' 등이 있고, 기행 산문집으로 '내가 사랑한 사람 내가 사랑한 세상'이 있다. 1992년 제10회 신동

연 창작기금을 받아 시집 '참 맑은 물살'을 펴냈으며, 동서문학상을 수상했다. 오월시 동인으로 활동했다. 순천대 교수를 역임했다.

전북타임스는 독자 여러분을 대변해 드립니다

N 전북타임스신문

<https://www.jeonbuktimes.co.kr>



# 김제시, 투자유치 기반 강화로 미래 혁신성장 동력 확보

김제시가 투자유치 기반을 한층 강화하며 미래 혁신성장의 동력을 확보했다.

특히, 지난 2022년 민선 8기가 시작된 이후부터 총 8,635억 원 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해 1,777명 신규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냈으며 이는 민선 7기 대비 투자규모 약 40% 증가한 것으로 매우 활동한 성과로 평가된다. 또한, 기존 산업용지 분양률이 100%에 이르는 상황에서 입주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지평선 백구 제2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했다.

산업부 기회발전특구지정, 중기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산업부 한국형 쿠스타트 프로그램 공모 선정, 산업부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 등 대한민국 투자 최적지로 각광받고 있는 김제시를 조명해 본다.

(편집자 주)

## # 기업 유치의 신(新) 블루오션으로 각광받는 김제시

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국내외 경기 불안과 정치적 혼란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도 (주)두산을 비롯한 35개 기업과 총 8,365억 원 투자 및 1,777명 고용 창출을 목표로 투자협약을 체결해 역대 최고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했다.

※ 2025년 10월 기준

(주)도어코리아, (주)한국몰드김제 등 9개 기업과 총 912억 원, 535명 고용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인정적 지역 일자리 창출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2024년 6월에는 새롭게 조성 중인 백구·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북 최대 규모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되면서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했다.

이어 2025년 3월과 7월에는 산업부의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인력 양성 지원사업과 '한국형 쿠스타트 프로그램 사업'에 전북도에서 유일하게 연속 선정되며 두 사업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기업 맞춤형 전문 인력 공급 기반과 투자 유인이 한층 강화됐다.

또한, 지평선산단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 연장('25. 2.)되면서 입주기업은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공공 입찰에 참여하는 등 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경쟁력 제고는 물론 향후 추가 투자유치 기반 역시 한층 공고해졌다.

시는 이러한 정책적 기반과 함께 백구·지평선 제2 산단 투자 기업 유치를 위해 전국 산업 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투자설명회 개최, 지역 혁신기관·산업협회와의 세미나·워크숍, 타깃 기업 대상 현장 컨설팅 등 숨 가쁘게 이어지는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며 향후 투자 확대를 견인할 수 있는 동력을 꾸준히 축적하고 있다.

## # 김제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내외 입증

먼저, 시는 지난해 차별화된 기업지원 시책 추진 등을 인정받아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평가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수상 배경에는 부서별 1:1 기업진단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청년교통비지원사업, 김제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등 김제시만의 차별화된 기업지원 시책을 추진한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삼성 스마트 혁신 프로젝트,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등 기업 체감도 높은 정책으로 전국 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한편, 김제형 통상다터를 비롯해 글로벌시장 진출 토탈마케팅 지원사업,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등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판로 개척과 더불어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2025년 6월에 산업통상자원부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으로써 준공되자 30년된 순동산업단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고 있다.

## # 산업단지 환경개선으로 청년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시는 벤처·중소기업 창업의 요람이자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성장 거점이 될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추진을 지난해 10월 부지조성을 시작으로 본격화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김제시는 27년까지 5년간 국비 16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98억 원을 투입해 지평선산업단지에 지난 4종 규모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단지 환경개선과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대규모



민선8기 총 8,635억 원 규모 투자협약 체결, 민선7기 대비 투자규모 약 40% 증가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내외 입증  
신규 산단 조성 및 친(親)기업 환경 구축 등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농공단지 폐기지 지원사업을 비롯해 순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이 추진 중이다.

농공단지 폐기지 지원사업으로는 월촌리팩토리 사업, 백구농공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 백구 혁신지원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있으며 2026년까지 총사업비 128억 6천만 원을 투입하며 월촌리팩토리 사업과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은 완료했다.

월촌리팩토리 공장은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임대형 공장으로 털바꿈하여 청년 유입의 기반이 되며, 백구농공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노후화된 보행로와 가로 환경을 정비하고, 산책길·녹지공간·쉼터 등 근로자와 지자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조성했다.

특히, 백구농공단지와 순동산업단지 내 조성될 복합문화센터는 현장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삼아 공사를 진행 중이며 북카페, 휴게실 등 근로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 공간이 있어 지역공동체 활

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 미래성장동력 확보, 백구 일반산업단지와 지평선 제2산업단지 조성 순항

시는 안정적 산업용지 공급과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백구 일반산업단지와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백구 산단은 2024년 사업에 착수하여 올해 분양을 앞두고 있으며 지평선 제2산단은 지난해 7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평도면 고시가 최종 완료됨에 따라 내년에 착공을 앞두고 있다.

특히, 시는 지평선제2산단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국·도비 329억 원을 확보하여 진입도로 및 공업용수도 설치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27년 신규사업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국·도비 확보도 병행하여 시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산업단지 분양성과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는 방

침이다.

한편, 백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지난해 9월부터 협의 보상 절차를 착수하여 10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지평선산업단지 내 유해 물질 확산 방지 및 비상 상황 대응을 위한 완충 저류지 설치도 올해 본격 공사 중에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시는 역대 최고 수준의 투자유치 성과를 기반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견고히 하고 있다"면서 "신규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지원시설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마련하는 한편 체계적인 산업단지 관리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이 오면 성장하고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기회 도시 김제를 목표로 전방위적 투자 세일즈와 적극적인 기업 지원 및 경쟁력 있는 산업 인프라 구축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제=온봉기 기자